

‘선두 질주’ 광주도시공사 홈팬 앞에 선다

개막 6경기 무패행진 5승 1무
29일 부산·내달 5일 경남 대결
핸드볼리그 광주서 총 11경기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도시공사가 29일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개막 6경기 무패행진으로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가 홈팬들 앞에서 실력을 겨룬다.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광명과 부산에 이어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광주 빙고올림픽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여자부 8경기, 국제대회를 마치고 리그를 재개하는 남자부도 3경기가 열린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광주도시공사도 오랜만에 안방에서 경기를 갖는다. 28일 오후 2시 부산시설공단, 2월 5일 오후 2시 경남개발공사와 2경기를 앞두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개막에 앞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2강으로 짝꿍, 예상대로 6경기 무패행진(5승1무·승점 11)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섰다.

아직 1라운드지만 광주도시공사의 공·수 조지력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완벽한 밸런스를 보이고 있다. 뻑뻑한 일직수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광주도시공사의 승승장구 비결은 골키퍼 선방과 함께 매서운 득점력을 꼽을 수 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올해는 여자부 8개팀 모두 실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골키퍼의 역할이 경기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개막 후 6게임을 치르는 동안 골키퍼 박조은과 손민지가 잘해줬다”고 설명했다.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강

경민, 서아루, 김금순 등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조지력과 선수단 내 신인, 베테랑의 조화다.

오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타팀은 이적 선수와 영입 발표가 많았지만 우리 팀은 특별히 선수 변화가 없었다. 에이스 강경민의 빠른 속공이나 스피드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고루 득점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피벗 김금순의 합류로 수비 쪽이 한 층 더 단단해졌다. 신인 선수들은 원포지션

◇핸드볼 리그 광주 일정

1월 27일 (금)	4시	인천시청:서울시청
	6시	삼척시청:SK슈가글라이더즈
1월 29일 (일)	2시	광주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
	4시	경남개발공사:대구시청
2월 3일 (금)	4시	삼척시청:인천시청
	6시	서울시청:SK슈가글라이더즈
2월 4일 (토)	2시	인천도시공사:상무피닉스
	4시	두산:충남도청
	6시	SK호크스:하남시청
2월 5일 (일)	2시	광주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
	4시	대구시청:부산시설공단

이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미디어에이 당시 SK슈가글라이더즈와 함께 각 구단 감독들의 선택을 받아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다.

오 감독은 “선수들도 나도 경기를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 15게임이 남았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오프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우승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초반 기세를 후반까지 잘 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9일은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올시즌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부산시설공단(4승2무)과 홈경기를 펼친다. 이번 상대 부산시설공단은 광주도시공사와 승점 1점차 2위(승점 10)에 올라있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혈투가 예상된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은 일본 리그에서 뛰던 이미경이 1년 만에 복귀하고 가비나, 알리나 등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오 감독은 “부산시설공단에는 용병이 2명씩 있다. 골키퍼와 외곽에 장신 외국인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고 이미경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타팀에서 부상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팀이 선수층이 두껍지 않다 보니 선수단에게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며 “부산과 경기를 부상없이 마쳐 1라운드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팀의 제28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남자선수권대회 참가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남자부 경기도 광주에서 재개된다. 남자부 경기는 2월 4일 인천도시공사와 상무피닉스, 두산과 충남도청, SK호크스와 하남시청 경기가 펼쳐진다. /조혜원 기자



마인츠 이재성(가운데)이 26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홈경기에서 전반 2분 선제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성 시즌 3호골에도 1-2 역전패

마인츠, 도르트문트에 패

이재성(31)이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지만, 소속팀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는 도르트문트에 역전패했다.

마인츠는 26일 오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졌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재성은 에디밀손에르난데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득점했다. 이로써 이재성은 올 시즌 리그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마인츠는 그러나 불과 2분 뒤 동점골을 내줬다.

도르트문트 윌리안 뤼에르손이 페널티아

크 정면에서 날린 왼발 중거리슛이 마인츠 골망을 흔들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 48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바스티안 할러의 헤더에 조반니 레이나가 발을 갖다 대 승부를 극적으로 뒤집었다.

6경기 무승(2무 4패)에 그친 마인츠는 12위(승점 20·5승 5무 7패)에 머물렀고, 도르트문트는 5위(승점 31·10승 1무 6패)로 올라서며 4위권 진입에 한발 다가섰다.

정우영(24)이 결장한 프라이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2023시즌 K리그2 3월 1일 키오프

전남, 안양과 개막전

2023시즌 프로축구 K리그2가 3·1절에 막을 올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시즌 K리그2 정규리그 일정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시즌 K리그2엔 신생팀인 천안시티 FC, 충북청주FC가 가세해 13개 구단이 참가, 팀당 36경기를 치른다.

개막 라운드는 3월 1일에 6경기가 열린다.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에 3경기씩 개최된다.

지난 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던 경남FC와 부천FC가 3월 1일 오후 1시 30

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개막전에 나서고, 같은 시간 천안은 안방인 천안종합운동장으로 부산 아이파크를 불러들여 K리그2 데뷔전을 치른다.

전남 드래곤즈와 FC안양은 광양전용구장에서 격돌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성남FC-안산 그리너스(탄천종합운동장), 충남아산-김천 상무(이순신종합운동장) 경기가 열리며, 청주는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로 K리그2에 첫선을 보인다.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만데이 나이트 풋볼’은 7월 3일 안양-성남 경기를 시작으로 13차례 펼쳐진다. /연합뉴스

박지수,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입단

한국 축구에 또 한 명의 ‘유럽파’ 중앙 수비수(센터백)가 탄생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29)가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넨스에 입단했다.

포르티모넨스 구단은 26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수를 비롯한 5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포르티모넨스는 계약기간을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지수는 내년 여름까지 1년 6개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이 포르티모넨스와 박지수 사이에 ‘다리’를



박지수

나섰다.

박지수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없었지만, (벤투 감독님이) 포르티모넨스 감독님과 통화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지수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으나 최종명단 발표 직전 치른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쳐 카타르에 가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연합뉴스

오지영 트레이드 문체부 유권해석 받는다

출전금지 조항 계약위반 소지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가 리베로 오지영(35)의 트레이드 합의 과정에서 삽입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은 기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 구단은 문서상으로 보장된 선수의 권리를 침해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KOVO는 26일 오지영의 트레이드와 관

련, “계약서 내용은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으며 문체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뒤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당시 문체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계약서를 도입했으며 현재 프로배구를 포함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각 리그에 맞는 ‘표준계약서’로 선수들과 계약 맺고 있다.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트레이드는 표준계약서 제4조(구단의 의무) 3항과 관련해 위배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엔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외부요인을 배제하고 선수의 부상, 기량 등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경기 출전 기회와 훈련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항엔 인종 문제 등 일반적인 차별 예시

만 적혀있지만, 구단 이익을 위한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도 차별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구단의 합의 내용은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와 벗어나며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번 트레이드는 계약서 제19조(트레이드) 1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엔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오지영은 트레이드로 인해 GS칼텍스 경기 출전권 박탈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다. 그는 이 결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

이를 경쟁 등 선수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익을 본 건 두 팀뿐이다. 연패 늪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전력 강화에 성공했고, GS칼텍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리그를 소화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이 GS칼텍스를 제외한 타팀과 경기에만 오지영을 활용하게 돼 GS칼텍스는 반사 이익을 봤다.

KOVO는 “양 구단의 합의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4조 3항의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19조 1항 위반 여부에 관해선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함은 선수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인식돼 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